

# 全國索引誌刊行協同體制 編成方案에 관한 研究\*

崔 成 眞\*\*

## <목 차>

- |                   |                  |
|-------------------|------------------|
| 1. 서 언            | 4. 1. 빈틈         |
| 1. 1. 문제의 제기      | 4. 2. 중부         |
| 1. 2. 연구의 목적      | 4. 3. 불완전한 수록범위  |
| 1. 3. 연구의 방법      | 5. 개선을 위한 논의     |
| 1. 4. 연구성과의 활용 전망 | 5. 1. 새 색인지      |
| 1. 5. 몇가지 가정      | 5. 2. 조정         |
| 1. 6. 주요 용어의 정의   | 5. 3. 보완         |
| 2. 색인지의 기능        | 5. 4. 과도적 조치     |
| 2. 1. 기능          | 6. 결 론           |
| 2. 2. 간행기관        | 참고문헌             |
| 3. 현 황            | 부록 1—예비조사 대상 기관  |
| 3. 1. 주요 색인지      | 부록 2—주요 색인지 간행기관 |
| 3. 2. 현황의 요약      | 부록 3—조사용지        |
| 4. 문 제            |                  |

## 1. 서 언

### 1. 1. 문제의 제기

필자도 참여하여 수행한 1983년도 교육정책과제인 「전국도서관자원에트위크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그 연구를 보완할 후속 연구로서 전국 색인지 간행협동체제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 이 研究는 1984年度成均學術院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있다. 색인지는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문헌이용자들에게 특정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포함하는 문헌, 그 문헌 속의 위치 등을 알려 주는 일종의 안내 문헌으로서 문헌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색인지가 없으면 세계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생산 축적되는 많은 문헌 속에서 필요한 문헌을 알아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색인지들이 간행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상호 어떤 체계의 형성이나 조정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각 도서관, 연구소, 학술단체 등이 각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간행 배포됨으로써 색인지들 사이에는 중복과 공백이 생겨나고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한 자원의 낭비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능률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속히 국내의 색인지 간행활동이 조정되고 어떤 형태로든 협동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계획 실행된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국내의 주요 연구성과들을 각종 색인지에 체계적으로 수록 배포함으로써 국내외의 각 분야 연구자, 기술자 및 기타 문헌이용자들이 그 속에서 필요한 문헌을 편리하게 인지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미 간행되었거나 계속 간행되고 있는 주요 색인지들의 주제분야, 특징, 수록범위, 간행빈도, 배포범위, 이용가치, 개선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둘째,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며,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며, 현재 간행되고 있기는 하나 내용이 빈약하여 보완을 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셋째, 그렇게 진단된 문제영역들을 정보관리의 일반원칙들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및 상황에 비추어 검토한 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전국적 색인지

간행협동체제의 모형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간행기관 내부에만 배포할 의도로 작성 인쇄되는 성격의 색인지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주로 간행기관 밖의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출판되는 색인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간행되는 일반 외국문헌 색인지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외국문헌들이 대체로 외국 색인지에 더 완전하고 더 신속하게 수록되므로 그것을 입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외산업기술정보」 등 국내 특정 이용집단의 관심에 따라 선정된 외국문헌들의 색인지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한 색인지는 외국에서 출판되지 않기 때문이다.

### 1.3. 연구의 방법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주요 색인지들의 수록범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둘째, 그렇게 조사된 색인지들을 한국 십진분류표에 기입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색인지들이 어떤 주제분야에 집중 또는 중복되어 있고 어떤 주제분야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그 결과를 더 심층 분석하여 바람직한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를 마련하려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새로운 색인지가 필요하고, 어떤 기존 색인지들이 통폐합되어야 하고, 어떤 색인지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실제로는 전국적 성격의 색인지를 간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부록 1의 42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행하고 그 중에서 전국적 성격 즉 외부 기관이나 개인 이용자들에게 배포할 의도를 가진 색인지를 간행하고 있는 9개 기관을 확인하였다. 이 9개 기관에서 간행하는 30개 주요 색인지의 간행목적, 주제분야, 수록범위, 간행빈도, 기록내용, 배포범위 간행전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4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각 기관을 방문하면서 부

록 3의 조사용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1.4. 연구성과의 활용전망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가 마련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본적 색인지들이 주요 국고지원 도서관 또는 국고지원 기관 부설 도서관들에 의하여 상호 중복이나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분담 간행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연구자, 기술자 및 기타 문헌이용자들이 필요한 문헌을 효율적으로 탐색 이용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중복된 노력으로 인한 이전의 자원 낭비는 배제될 것이다.

#### 1.5. 몇가지 가정

본 연구는 다음의 몇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계획 실행되었다.

첫째, 국고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도서관 또는 관련 기관들은 그 기본 이용 집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전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인식 아래 국고지원 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 기대되는 전국적 성격의 색인지를 간행하여 국내에 축적되는 문헌들의 이용상 편의를 제공할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일반 외국문헌에 대한 색인지는 각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출판되는 색인지를 입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경제적이므로 국내에서 작성 간행할 필요가 없다.

셋째, 기본적으로 내부 이용자들에게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들이 외부에 배포할 의도로 색인지를 간행하는 경우 그 일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외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한 전국적 성격의 색인지 간행은 결국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와 같이 색인지 간행활동이 아직 초보적이고 미약한 상황

에서는 정교하게 체계화된 색인지 간행체제의 개념을 일시에 도입하기 보다 기존 체제의 틀 안에서 지도와 조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6. 주요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2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색인지

색인은 비단 문헌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말이지만 본 보고서에서 색인이라함은 기존 문헌들에 대한 체계적 안내 또는 탐색도구로서 만들어지는 종류의 간행물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의 색인지는 주제분야, 간행시기, 간행지, 언어 혹은 저자 별로 모든 또는 선정된 기존 문헌의 이름과 그것이 포함된 위치(예컨대 어떤 잡지 속에서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표시한다. 새 문헌이 끊임없이 나오므로 색인지는 계속적으로 간행되며 이것은 색인지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관점에서 색인지는 목록이나 서지와 유사하다. 목록과 서지도 문헌의 이름, 주제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헌이므로 외형상 색인지와 비슷하지만 도서 관목록은 어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만을 수록하여 그러한 제한이 없는 색인지와 구별되며, 서지는 저자, 주제분야, 간행지, 간행시기 별로 문헌을 열거하지만 그것은 물리적 단위로 문헌을 열거하여 색인지와는 구별된다. 서지에는 잡지명이 기입되나 색인지에는 그 잡지 속에 게재된 각 기사명이 기입되는 것이다. 어떤 책 속에서 다루어진 주제명, 인명, 지명 등의 위치(즉 페이지)를 표시하는 권말색인은 물론 색인지와 구별된다.

#### (나)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

이것은 전국의 색인지 간행기관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담 수록하여 중복이나 누락 없이 색인지들 속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또는 외국 이용자들이 필요한 문헌에 편리하게 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

는 협동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협동체제의 형성에는 불가피하게 기존 체제의 변화가 요구되어 유사한 색인지들의 통폐합, 누락된 색인지 간행의 할당 등 개혁조치가 따르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호혜원칙과 국고지원하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평가 조정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 중앙 조정기구가 정부내 고위 수준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색인지의 기능

연구자, 기술자 및 기타 문헌 이용자들이 문헌 이용의 실제에 있어서 색인지를 통하여 받는 도움이 무엇이며, 그러한 색인지는 주로 어떤 기관들에 의하여 간행되는가? 본 장은 이 두 물음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를 논의하는 본보고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

### 2.1. 기 능

샤논과 위버가 제시한대로<sup>1)</sup> 정보의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 (가) 기술상의 측면
- (나) 의미상의 측면
- (다) 효과상의 측면

첫째번 측면은 송신자가 보내는 신호(또는 기호)가 얼마나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번 측면은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 즉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고, 셋째번 측면은 메시지의 전달로 수신자에게 일어난 반응 즉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1) Shannon, C.E.; Weaver, W.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49.

도서관봉사는 기본적으로 위의 첫째번 측면을 개발한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장서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사서들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문헌을 수집하고, 수집된 문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편리하게 이용시키는 방법과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보유통과정의 다른 두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미상의 측면에서 분류법과 색인법이 고안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것이 실제적 효용성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적다. 셋째번의 효과상의 측면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며, 정확히 언제 책이나 잡지 기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것을 읽은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문헌을 이용한 결과 다음에 어떤 문헌을 요구하게 되는지?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정보유통체제를 한층 더 효율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각종 색인지의 네트워킹으로 마련되는 모든 기존 문헌에 대한 지적 접근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색인지와 문헌탐색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양자는 상호관련되어 정보검색시스템의 기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헌탐색에 이용되지 아니한다면 색인지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한편 색인지의 도움 없이 문헌을 탐색한다는 것은 수백만 또는 수천만 건의 문헌 내용을 하나 하나 조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색인은 처음 개인적 필요에 따라 개인이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오랫동안 각 도서관이 그 이용집단의 요구에 따라 소장 문헌들의 지적 내용과 각 문헌의 물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도구로서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19세기에 이러한 풍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배경은 학술잡지 종수의 급격한 증가였다. 즉 한 도서관이 모든 학술잡지를 구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또 각 도서관이 수집한 학술잡지마저 제대로 색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색인지 간행기관이 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색인지는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문헌들에 대한 지적 접근 수단을 제공

하지만 학술잡지색인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연구개발 결과가 학술잡지에 발표되며, 도서들 속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정보도 처음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학술잡지색인에는 (가)한 잡지에 대한 색인과 (나) 여러 잡지들에 대한 종합색인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보통 출판사가 연말 호에 붙여서 간행하는 것으로 그 해에 그 잡지 속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수록하며, 후자는 대개 전문적 색인지 간행기관에서 같은 주제분야의 여러 잡지들 속에 게재된 기사들을 수록하여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문헌이용자들에게 있어 전자는 중요하고 확실히 유용하지만 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2.2. 간행기관

색인지는 필자가 쓴 우리나라 초록시스템에 대한 한 조사 보고서<sup>2)</sup>에 지적된 초록지 간행기관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다섯 기관에서 간행된다.

- (ㄱ) 실업 및 산업분야 기업체
- (ㄴ) 학술 및 전문직 단체
- (ㄷ) 연구기관
- (ㄹ) 정부기관
- (ㅁ) 출판사

### (가) 실업 및 산업분야 기업체

실업 및 산업분야 기업체들의 주요 관심사는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색인지는 자체의 활동에 필요한 대내 정보관리업무의 일환이다. 기업체의 연구개발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기술보고서가 생산되어 그 재이용의 편의를 위한 색인의 작성이 필요하고, 또 보통 다른 기업체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생산되는 보고 문헌을 수집하므로 그러한 자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그것들에 대한 색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실업 및 산업분야 기업체의 관심사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대한 정

2) 최성진. 우리나라의 초록시스템—현황, 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 1984; 6:133-63.



보봉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체의 실업 및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sup>3)</sup>

(나) 학술 및 전문직 단체

학회나 전문직 협회의 목적은 소속 회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이론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회나 협회는 흔히 학회지 및 기타 일차문헌을 출판하고, 자체의 간행물 색인, 때로는 해당분야의 일반적 문헌 색인을 간행하는 학회나 협회도 있다. 이렇게 학회나 협회에서 간행되는 초록지가 현재 세계적으로 전체 색인지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sup>4)</sup>

(다) 연구기관

여기에는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학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이 기관들에서 간행되는 색인지는 비교적 적으나 그렇다고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sup>5)</sup>

(라) 정부기관

오늘날 정부기관들은 각종 색인지를 간행함으로써 많은 주제분야에서의 정보유통을 돕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연방정부는 그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출판기관이며 그 정보의 출력량은 엄청나고 복잡하다. 많은 색인지가 간행되기는 하지만 그 정보 중의 대부분은 색인되지 아니하고 묻혀버려 소수 연구자 외에는 영구히 알려지지 아니한다.

(마) 출판사

출판사가 색인지를 간행하는 기본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색인지의 성격상 그 종수는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전체 색인지의 약 10%가 출판사에서 간행되고 있다.<sup>6)</sup>

3)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FID News Bulletin, 1974; 24:3-4.

4) Keenan, S.V.; Elliot, M.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1973; 64:145-50.

5) Borko, H.; Bernier, C.L. Abstract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p. 222.

6) Cleveland, D.B.; Cleveland, A.D. Introduction to Indexing and Abstracting. Littleton, U.S.A.: Libraries Unlimited, 1983, p. 160.

### 3. 현 황

본 장에서는 조사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주요 색인지들의 주제분야, 특징, 수록범위, 기록내용, 간행빈도, 배포범위, 이용가치, 간행전망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3.1. 주요 색인지

우리나라에서 외부 이용자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간행되는 주요 색인지 하나 하나에 대하여 편의상 부록 2의 색인지 간행기관 열거 순에 따라 각 기관에서 간행되는 색인지를 다음의 순서로 간추려서 기술한다.

- (1) 학술논저총합색인
- (2)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
- (3)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
- (4) 북한간행물기사발췌목차집
- (5)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차집
- (6)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
- (7) 국회간행물목록및색인
- (8) 국회회의록색인
- (9) 대한민국법령색인
- (10) 외국잡지주요기사색인
- (11) 정기간행물기사색인(국회도서관)
- (12) 주제분야별기사색인 시리즈
- (13)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
- (14) KOTRA무역정보INDEX
- (15) 해외산업기술정보
- (16) 법률문헌색인
- (17)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목록집

- (18) 관보색인
- (19) 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
- (20) 정부행정자료속보
- (21) 공개실용신안공보
- (22) 공개특허공보
- (23) 상표공보
- (24) 실용신안공보
- (25) 의장공보
- (26) 특허공보
- (27) 신착자료속보(한국은행 도서자료실)
- (28) 경기간행물기사색인(한국은행 도서자료실)
- (29) 조사월보논고제목총색인
- (30) 주간내외경제논고제목총색인

#### (1) 학술논저총합색인

이 색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학술논저(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를 주제분야별로 색인하여 매년 1집씩 간행하는 것이다. 1973년에 제 1집(법률학)이 간행되고 1984년에 제12집(도서관학)이 간행되었다. 이 색인지는 주제별 저자색인과 서명색인의 2부로 구성되어 있다.

#### (2)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 이후 1980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교육과정관계도서와 학술잡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등에 실린 논문 및 기사를 색인하여 1980년에 간행한 것이다.

#### (3)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

이 색인지는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이 국내의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212

중에 게재되는 북한관계 연구논문, 자료 및 단행본을 색인하여 1976년부터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1979년에 제 2집이 간행된 후 지금까지 예산 사정으로 간행이 중단되어 있다.

(4) 북한간행물기사발췌목차집

이것은 국토통일원이 동원 자료관리국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관계 잡지 속에 게재된 중요 기사를 선정 색인하여 1984년부터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5)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차집

이것은 국토통일원이 동원 자료관리국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잡지(마이크로필름)의 목차를 모아서 1983년부터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6)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

이 색인지는 국토통일원이 동원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동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모아서 1976년부터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1977년에 제 2집이 나온 후 지금까지 예산 사정으로 간행이 중단되어 있다.

(7) 국회간행물목록및색인

이것은 국회도서관이 국회 개원 이후 1977년 말까지 사무처 및 도서관에서 간행한 자료 657종, 2,728책의 목록과 수록된 간행물들에 대한 주제별 색인을 작성하여 붙인 것이다.

(8) 국회회의록색인

이 색인 시리즈는 국회도서관이 각 대의 국회 본회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색인하여 부정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회의록은 발언자와 주제명을 표목으로 하여 색인되어 있다.

(9) 대한민국법령색인

이 색인지는 국회도서관이 정부 수립 이후 제정, 개정, 폐지, 실효된 모든 법령과 조약을 수록하여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1973년에 나온 제 4집 이후 아직 개정판이 간행되지 않고 있다.

#### (10) 외국잡지주요기사색인

이 색인지는 국회도서관이 동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사회과학분야 외국잡지 약 200종에 게재되는 주요 기사를 선정 수록하여 1982년부터 계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이 색인지는 외국잡지 기사에 대한 색인이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 속에 국내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산권 잡지 약 50종에 대한 색인이 포함되어 해당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되어 있으며 외국색인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 (11) 정기간행물기사색인 (국회도서관)

이 색인지는 국회도서관이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학술잡지 및 정부기관들에서 간행되는 각종 축차간행물을 총망라한 기사색인으로서 1965년부터 격월간으로 간행되며 편집 및 인쇄업무가 전산화된 1977년부터는 연간 누가합본이 간행되고 있다. 누가합본에는 매년 그 해에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잡지 및 정부기관 축차간행물 기사들이 모두 수록된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일반 대중잡지 기사나 학부학생이 기고한 대학신문 기사 등은 수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12) 주제분야별기사색인 시리즈

이 색인 시리즈는 국회도서관이 위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간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편집, 조판하여 주제분야별 기사색인집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다음의 두가지 색인집이 간행되었다.

(ㄱ) 인문과학논문기사색인 (1977—80)

(ㄴ) 사회과학논문기사색인 (1977—80)

## (13)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

이 색인지는 매년 그 해에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청구논문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여 1969년부터 연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 기입 아래에는 키워드와 초록이 붙여진다.

## (14) KOTRA무역정보INDEX

이 색인지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자료실이 동 공사의 해외조직망과 기타 정보망을 통하여 수집된 전월 발생 무역정보자료를 지역별, 상품별, 주체별로 분류 수록한 것이며, 1980년부터 월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 (15) 해외산업기술정보

이것은 해외협력위원회가 해외공관을 통하여 입수해서 산업연구원에 송부하는 외국의 최신 산업기술정보자료 (팜플렛이 대부분)를 국내 기업체, 정부기관 및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색인하여 산업연구원 정보자료실이 1983년 이래 한 두 줄의 해제를 붙여 주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이 색인지에 수록된 정보자료는 산업연구원 정보자료실의 「해외산업기술정보자료코너」에서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이 색인지는 외국문헌을 수록하므로 원칙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 수록 문헌들이 우리나라 기업체, 정부기관 등의 관심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외국색인지로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 (16) 법률문헌색인

이 색인지는 서울대학교도서관이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학관계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술잡지 기사를 색인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1975년에 나온 제 1집에는 단행본 3, 149종, 학위논문 2, 361편, 잡지기사 25, 854편이 색인되어 있다.

## (17) 공무원의 여행귀국보고서 목록집

이것은 정부기록보존소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타 공무원의 여행자가 국외출장 또는 연수를 마친 후 보고한 귀국보고서를 색인하여 1981년부터 연간으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18) 관보색인

이 색인지는 총무처가 발행하는 월간관보의 1년분 내용을 색인하여 1948년 이래 연간으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19) 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

1974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동 보존소가 소장 관리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를 수록하여 「정부기록보존문서총괄목록」을 부정기로 간행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은 이 총괄목록에 수록된 영구보존문서와 마이크로필름을 색인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1977년부터 연간으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0) 정부행정자료속보

이 속보는 정부기록보존소가 그 행정자료실에 수집 등록되는 도서에 공무원의 여행귀국보고서 및 마이크로필름화된 고문서를 덧붙여 1981년부터 월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 (21) 공개실용신안공보

이 공보는 1983년 이래 특허청 자료과가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외공개실용신안의 색인을 작성하여 해당 공개실용신안 명세서들을 붙여서 한 호분(약 300면)이 모이는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2) 공개특허공보

이 공보는 1983년 이래 특허청 자료과가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외 공개특

의 색인을 작성하여 해당 공개특허명세서들을 붙여서 한 호분(약 400면)이 모이는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3) 상표공보

이 공보는 1952년 이래 특허청 자료과가 특허청에 등록 공고된 상표의 색인을 작성하여 해당 상표 명세서들을 붙여서 한 호분(약 200면)이 모이는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4) 실용신안공보

이 공보는 1948년 이래 특허청 자료과가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의 실용신안의 색인을 작성하여 해당 실용신안 명세서들을 붙여서 한 호분(약 200면)이 모이는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5) 의장공보

이 공보는 1948년 이래 특허청 자료과가 특허청에 등록 공고된 국내의 의장의 색인을 작성하여 해당 의장 명세서들을 붙여서 한 호분(약 200면)이 모이는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6) 특허공보

이 공보는 1948년 이래 특허청 자료과가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의 특허의 색인을 작성하여 해당 특허명세서들을 붙여서 한 호분(약 200면)이 모이는데로 계속 간행하는 것이다.

### (27) 신착자료속보(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이 색인지는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이 동 도서자료실에 수입되는 잡지의 목차와 국내 신문들에 게재되는 주요 경제관계 기사들을 수록하여 1970년 이래 주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이 색인지의 경제관계 신문기사는 특히 다른 색인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표 1〉

주요 색인지

주제분야	색인지명	간행기관	간행년도	수	록	범	위	장간년	최근간행년	참고사항
전문분야	정기간행물기사색인	국회도서관	격월간	국내에서 간행될 모든 간행물	출판물	모든 학술잡지와 정부		1965	1984	
"	주제분야별기사색인	"	부정기	국회도서관 간행물	각 주제분야의 기사			1981	"	
"	학술논저종합색인	국립중앙도서관	연간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저서 (단행본, 학위논문, 잡지기사)				1973	"	
"	한국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총목록	국회도서관	"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청구논문				1969	"	
법률	국회간행물목록및 색인	"	부정기	국회도서관 개인이래 사무처 및 도서관에서 간행한 모든 자료				1977	1977	
"	국회회의록색인	"	"	국회본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1975	1980	
"	대한민국법령색인	"	"	정부수립후 제정, 개정, 폐지 및 실효된 제법령과 조약				1969	1973	
"	법률문헌색인	서울대학교	"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학관계 저서 (단행본, 학위논문, 잡지기사)				1975	1977	
정치	국회간행물종합색인	국회도서관	연간	국내 학술잡지 212종에 게재된 북한관계 연구논문, 자료 및 단행본				1977	1979	
"	북한간행물기사만 채록차점	"	부정기	본 자료판권국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간행물들에 게재된 북한관계 중요기사				1984	1984	
"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록차점	"	"	본 자료판권국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잡지 (마이크로필름)의 목록				1983	1983	
"	북한관계연구자료 목록	"	"	국토통일원에서 생산된 모든 연구보고서				1976	1977	
"	외국잡지주요기사 색인	국회도서관	계간	공산권 잡지 약 50종을 포함하는 약 200종의 외국잡지에 게재되는 주요기사				1982	1983	

행	정	보고서제목	정부기록보존소	연	간	내	용	1981	1984
"	"	판보색인	"	"	"	행정(행정, 연구) 기록보존소 총무처가 발행하는 월간 판보의 1년분 내 용	1948	"	"
"	"	부기복본문서 색인목록	"	"	"	본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 와 마이크로필름	1977	"	"
"	"	정부행정자료속보	"	월	간	본소의 행정자료실에 수집 등록되는 자 료 및 마이크로필름 문서	1981	"	"
재	정	신착자료속보	한국은 행정 도서자료실	주	간	본도서자료실에 수입되는 잡지의 복사와 국내신문에 게재되는 주요경제관계기사	1970	"	"
"	"	정기간행물기사색 인	"	부	정기	본도서자료실에 수입되는 국내 및 구미 주요 정기간행물의 기사	1971	"	"
"	"	조사월보논고제목 색인	"	"	"	「조사월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	1980	1980	1980
"	"	주간내외경제논고 제목색인	"	"	"	「주간내외경제」지, 「주간경제」지 및 「주 간해외경제」지 기사	1980	1980	1980
무	역	KOTRA 무역정보 INDEX	대한무역진흥공 사 무역자료실	월	간	본공사의 해외조직망과 기타 정보만을 불하여 수집된 무역정보자료	1980	1982(사 업중지)	
교	육	한국교육과정관계 자료목록	국립중앙도서관 산업연구자료실	부	정기	국내에서 발행된 교육과정관계도서, 학술 잡지, 논문집, 연구보고서에 실린 기사	1981	1981	
산	업	해외산업기술통보	산업연구자료실	주	간	해외공파를 통하여 입수 통보되는 최신산 업기술정보자료(주로 팔팔팩)	1983	1984	
특	허	공개실용신안공보	특허청 자료과	부	정기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의 공개실용신안	1983	1984	
"	"	공개특허공보	"	"	"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의 공개특허	1983	"	"
"	"	상표공보	"	"	"	특허청에 등록공고된 상표	1982	"	"
"	"	실용신안공보	"	"	"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의 실용신안	1948	"	"
"	"	의장공보	"	"	"	특허청에 등록 공고된 국내의 의장	"	"	"
"	"	특허공보	"	"	"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의 특허	"	"	"

## (28) 정기간행물기사색인(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이 색인지는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이 동 도서자료실에 수입되는 국내 및 구미 주요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색인하여 1971년 이래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 (29) 조사월보논고제목총목록

1947년 5월 창간호부터 1979년 12월 제373호까지 「조사월보」에 게재된 모든 기사에 대한 색인을 작성하여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이 1980년에 간행한 것이다.

## (30) 주간내외경제논고제목총색인

이 색인지는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이 「주간내외경제」와 이것이 통합되기 전의 「주간경제」와 「주간해외경제」에 게재된 기사색인을 각각 연도순, 주제 및 표제의 자모순으로 수록하여 1980년에 간행한 것이다.

## 3.2. 현황의 요약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위의 주요 색인지들을 간추려서 한데 모아 표시하면 표 1 과 같다.

## 4. 문 제

앞의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주요 색인지들을 대강 훑어 보았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각 분야의 연구성과와 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등록하여 국내의 이용자들에게 재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 한번 훑어 본대로의 인상은 약간 비관적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빠져 있고, 무엇이 중복되고, 무엇이 빈약한지를 살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색인지 간행체제의 그러한 문제영역을 밝혀서 제시하려는 것이다.

#### 4.1. 빈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고 있는 색인지들이 우리나라의 색인수요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빈틈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표 2를 작성하였다. 표 2는 한국십진분류표에, 표 1에 표시된 우리나라의 주요 색인지 30종을 그 주제에 따라 기입한 것이다. 표 2에 분명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간행되고 있는 색인지들은 한국십진분류표 상의 9개 주제분야 중 2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의 7개 분야에는 전무하다.

- (1) 철학
- (2) 종교
- (3) 순수과학
- (4) 예술
- (5) 어학
- (6) 문학
- (7) 역사

이것은 위의 7개 분야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간행되는 각종 학술잡지나 기타 보고문헌을 일일이 찾아서 읽어 보기 전에는 누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알 길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이 7개 분야 연구자들의 발견이나 발명은 동료 연구자들에게 알려져 이용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색인지의 부재에서 결과되는 정보유통 상의 비효율과 혼란으로 해당 분야 연구활동의 생산성은 분명히 저하될 것이다. 물론 표 2의 종류분야에 들어 있는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주제분야별기사색인 시리즈, 「한국박사 및 석사하위논문총목록」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술논저총합색인」이 일반적으로나마 위의 7개 분야에 대한 색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있어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학술잡지와 정부 간행 축차간행물로 그 수록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여러가지 형태와 종류의 간행물 속에 발표되

<표 2> 주요 색인지의 주제분야(유별)

한국상진분류표		주요 색인 지
분류번호	유 명	
000	총 류	정기간행물 기사색인(국회도서관) 주제분야별 기사색인 시리즈 학술논저종합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100	철 학	
200	중 교	
300	사회 과학	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목록집 관보색인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 국회간행물목록 및 색인 국회회의록색인 대한민국법령색인 법률문헌색인 북한간행물기사발췌목차집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차집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 신착자료속보(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외국잡지주요기사색인 정기간행물기사색인(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 정부행정자료속보 조사월보논고제 목총색인 주간내외경제논고제 목총색인 KOTRA 무역정보 INDEX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
400	순수 과학	
500	기술 과학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특허공보 상표공보 실용신안공보 의장공보 특허공보
600	예 술	
700	어 학	
800	문 학	
900	역 사	

는 연구성과와 지적 자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제분야별기사색인 시리즈는 위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간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편집, 조판함으로써 주제분야별로 분책하여 간행하는 색인지이기 때문에 그 수록범위가 불완전하기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마찬가지로다.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그 표제가 분명하게 표시하듯이 나름으로 유용한 색인지이기는 하나 이것은 특수한 종류의 논문 즉 학위청구논문만을 수록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술논저총합색인」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모든 저작물(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에 대한 분야별 색인지로서 그 수록범위는 비교적 망라적이나 매년 한 주제분야씩 다루는 간행방침 때문에 개정판 간행주기가 너무 길어서 색인지로서의 유용성이 적다. 1973년에 제 1집으로 간행된 법률학편이 10년이 넘은 오늘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1984년에는 도서관학편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지식의 반감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과학분야에서는 4.3년)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용가치가 어떤 것일지는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전 분야의 색인지로서 열거된 위의 4개 지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색인지를 가지지 못한 7개 분야의 빈틈을 메우는데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된 것이다.

표 2에서 우리나라의 색인지 간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2개 분야 즉 사회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모두가 고루 색인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3은 이를 더 분명하게 알아 보기 위하여 한국십진분류표의 유강목 아래에 국내 주요색인지를 기입한 것이다.

표 3을 보면 표 2를 보고 색인서비스면에서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한 2개 분야, 특히 기술과학분야의 다수 이용자들도 자기 분야의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색인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9개 분야 중에서는 5개 분야, 기술과학분야에서는 단지 1개 분야에서만 이용자들이 제한된 범위의 것이기는 하나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 색인 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기술과학분야의 6개 특허공보

〈표 3〉 주요 색인지의 주제분야 (감별)

한 국 십 진 분 류 표		주 요 색 인 지
분류번호	유 · 강 명	
300	사 회 과 학	
310	통 계 학	
320	경 제 학	신착자료속보(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조사월보논고계목총색인 주간내외경제논고계목총색인 KOTRA 무역정보 INDEX
330	사회학·사회문제	
340	정 치 학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 북한간행물기사발췌목차집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차집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 외국잡지주요기사색인
350	행 정 학	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목록집 판보색인 정부기록보존문서색인목록 정부행정자료속보
360	법 학	국회간행물목록 및 색인 국회회의록색인 대한민국법령색인 법률문헌색인
370	교 육 학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
380	풍 속 · 민 속 학	
390	국 방 · 군 사 학	
500	기 술 과 학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특허공보 상표공보 실용신안공보 의정공보 특허공보
510	의 학	
520	농 업 · 농 학	
530	공업일반·토목공학	
540	건 축 공 학	
550	기 계 공 학	
560	전 기 공 학	
570	화 학 공 학	
580	제 조 업	해외산업기술정보
590	가 사 · 가 정 학	

류가 기술과학의 전분야를 망라하는 색인지이기 때문에 색인지가 전혀 없는 8개 단위 분야에 대한 색인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특히 공보류는 특허청에 출원된 각종 특허명세서의 색인지일 뿐 기술과학분야 연구성과의 주요 발표광장인 전문잡지, 논문집, 보고서류를 포괄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적 색인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것이다.

결국 한국십진분류표 상의 9개 주제분야 중 현재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색인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분야를 종합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철 학. 전분야
- (2) 중 교. 전분야
- (3) 사회과학. 통계학  
사회학·사회문제  
풍속·민속학  
국방·군사학
- (4) 순수과학. 전분야
- (5) 기술과학. 의학  
농업·농학  
공업일반·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가사·가정학
- (6) 예 술. 전분야
- (7) 어 학. 전분야
- (8) 문 학. 전분야
- (9) 역 사. 전분야



#### 4. 2. 중복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분야의 연구자, 기술자 및 기타 문헌이용자들만이 색인지를 통하여 국내 연구성과와 기타 지적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소수분야에서 간행되는 색인지나마 서로 겹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정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상 중복되는 색인지의 간행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조정을 통하여 절약되는 자원은 다른 분야의 색인지 간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와 표 3을 자세히 살펴 보면 몇 군데에 부분적 중복과 비능률이 개재하여 조정을 요함을 알 수 있다.

(1)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이 간행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는 「조사월보」지, 「주간경제」지, 「주간해외경제」지 및 「주간내외경제」지의 기사색인이 포함되어있지만 동 도서자료실은 이 잡지들 만의 색인지, 즉 「조사월보는고제복총색인」과 「주간내외경제는고제복총색인」을 따로 1980년에 간행하였다. 이러한 개별적 잡지기사색인이 해당 잡지 독자들에게는 유용하겠지만 색인지 간행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의 두 개별적 잡지기사색인은 같은 간행기관인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명백히 중복되며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도 내용상 중복된다.

(2)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이 간행하는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지는 국내의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들에 게재되는 북한관계 연구논문, 자료 및 단행본을 수록하며, 동 자료관리국이 간행하는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은 국토통일원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동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수록한다. 후자의 내용은 대부분 전자와 중복되는 것이며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도 부분적으로 중복된다.

(3) 정부기록보존소가 간행하는 「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목록집」은 공무

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타 공무원의 여행자가 국외출장 또는 연수를 마치고 보고한 귀국보고서를 수록하며, 「정부행정자료속보」는 동 보존소가 그 행정자료실에 수집 등록되는 도서, 공무원의 여행귀국보고서 및 마이크로 폼화된 고문서를 수록하여 양자는 내용상 부분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4)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하는 「법률문헌색인」은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학관계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술잡지 기사에 대한 색인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되는 「학술논저총합색인」 법률학편의 내용과 거의 모두 중복된다. 후자는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학술논저(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를 주제분야별로 색인하여 매년 1집씩 간행하는 것이다. 법률학편은 1973년에 제 1집으로 간행되었다. 「법률문헌색인」 제 1집은 1975년에 간행되었다. 두 색인지가 모두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및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내용과도 부분적으로 중복된다.

#### 4.3. 불완전한 수록범위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 배포되고 있는 30개 주요 색인지는 어느 정도로 그 내용이 충실하며 각각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색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 본다. 색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가지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그 제일차적 기준은 수록범위의 포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에 표 3의 색인지들을 살펴 본다.

(1)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 연구자들은 그들의 주제분야에서 생산되는 문헌들에 대한 적절한 안내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4.1 참조). 이러한 색인지 간행의 초보적 단계에서는 국립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일반(즉 종합) 색인류가 국가의 전분야 문헌을 등록하고 모든 색인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그런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4종의 색인지(정기간행물기사색인, 주제분야별기사색인 시리즈, 학술논저총합색인 및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는 적어도 그 수록

범위에 관한 한 거의 나무랄 데가 없다. 즉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잡지들 속에 발표되는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기사들에 대한 거의 완전한 등록부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색인 외의 다른 국내잡지 종합색인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또 이 색인을 간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여 1981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인문과학논문기사색인」, 「사회과학논문기사색인」과 같은 주제분야별 전문색인 시리즈는 비록 그 수록내용이 중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분야 문헌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문색인은 그 주제가 더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되는 「학술논저종합색인」은 모든 종류와 형태의 국내 출판문헌을 한 주제 아래 모은 것으로 비록 그 수록내용이 이미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등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문헌검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존재의의가 있다. 이용자들이 문헌속에서 원하는 것은 특정 주제의 지식이나 정보이며 그것이 포함된 자료의 종류나 형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더 바랄 데 없는 완벽한 국내 학위논문 등록부이다.

문제는 이 일반색인지들(「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제외)의 긴 간행주기이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20년전 창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격월간으로 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이용자들 특히 연구자들의 속보요구에 맞지 않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색인지의 격월간제는 우리나라 각 분야 연구성과의 출력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20년 전의 상황에 맞추어 채택된 것이다. 주제분야별기사색인 시리즈는 1981년에 2종이 간행되었으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후속 판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연과학논문기사색인」의 간행전망도 불확실하다. 「학술논저종합색인」의 간행주기는 더욱 길어서 1973년에 제 1집으로 간행된 「법률학」편의 후속 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4.1 참조). 요컨대 두 국립도서관에서 간행되는 3종의 주요 일반색인지는 수록범위에 있어서 비교적 만족스러우나 간행주기가 긴 것이

큰 흠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적어도 숫적으로는 사회과학분야에 가장 많은 색인지(19종, 63.3%)가 집중되어 있으나 각 색인지의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수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문헌 안내도구가 미비되어 있기는 이 분야도 마찬가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학, 사회학, 민속학 및 군사학의 네 분야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색인지가 없다. 경제학분야에는 5종의 색인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신착자료속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조사월보논고제목총색인」 및 「주간내외경제논고제목총색인」의 4종은 한국은행 도서관자료실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색인지이거나 한국은행에서 간행되고 있는 잡지들에 대한 기사색인지로서 그 주제가 대체로 금융 재정분야로 제한되어 있고, 「KOTRA 무역정보INDEX」지는 기본적으로 무역분야 종사자들의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간행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학의 여타 부문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색인지는 없다.

정치학분야에도 5종의 색인지가 있다. 그 중에서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외국잡지주요기사색인」지를 제외한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 「북한간행물기사발체목차집」,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차집」 및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의 네 색인지는 모두 북한관계문헌 색인지이며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에서 간행되는 것이다. 국회도서관의 「외국잡지주요기사색인」의 주요 가치도 이 색인지에 수록되는 공산권잡지 약 50종에 포함되는 기사에 있다. 이렇게 보면 정치학분야의 5개 색인지는 모두 북한관계문헌을 수록하는 것뿐이며, 정치학의 여타 부문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색인지는 없다.

행정학분야의 네 색인지는 모두 정부기록보존소나 총무처(「관보색인」의 경우)에서 간행되는 정부 문서의 색인이며 이 분야의 학술적 문헌에 대한 색인지는 없다. 법률학분야에서 간행되는 「국회간행물목록 및 색인」, 「국회회의록색인」, 「대한민국법명색인」 및 「법률문헌색인」의 네 색인지는 이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비교적 충실한 문헌 안내도구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교육학분야의 유일한 색인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은 그 표제가 표시하는 간행목적으로 볼 때에는 비교적 만족스러

운 도구이다. 그렇지만 교육학분야에서 교육과정은 여러 연구부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교육학분야 연구자들은 적절한 색인도구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표 3을 보면 기술과학분야에는 6종의 일반 색인지와 1종의 제조업분야 색인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상 순수과학분야와 함께 색인지 수요가 가장 많은 기술과학분야에 이 정도의 색인지 밖에 없다는 것은 우선 수적으로 실망을 주는 일이지만 6종의 일반 색인지가 모두 특허청 자료과에서 간행되는 특허문헌색인지이고 제조업분야의 「해외산업기술정보」지는 국내문헌이 아닌 외국의 기술정보자료(대부분이 팜플렛류)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실망적이다. 요컨대 순수과학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과학분야에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색인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심지 않은 발에서 거두려는 기대와 같다.

## 5. 개선을 위한 논의

전 장에서 우리나라 색인지 간행체제의 문제영역들을 두루 진단하고 각 문제의 구체적 증상을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렇게 제시된 문제들을 정보관리의 일반적 원칙들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및 제한조건들에 비추어 논의한 후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5.1. 새 색인지

앞의 4.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색인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직접 연구보고서들을 입수하여 읽어 보기 전에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성과를 알기 어려운 분야가 7개나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이 7개 분야에는 적어도 1종씩의 새로운 일반적 성격의 색인지가 지체 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철학

- (2) 종교
- (3) 순수과학
- (4) 예술
- (5) 어학
- (6) 문학
- (7) 역사

전분야를 포괄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용한 일반색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용자 편에서 보면 관심 밖의 부분을 많이 포함하게 되고 부피가 커져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일시에 많은 새 색인지를 요구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여기서 순수과학분야와 불완전하지만 색인지들이 간행되고 있는 사회과학 및 기술과학분야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학문의 성격과 연구의 방법상 이 3개 과학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색인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다.<sup>7)</sup> 우리나라에서 현재 간행되고 있는 색인지들이 그 중 두 분야 즉 사회과학과 기술과학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현재 전문색인지가 없는 다음의 각 단위 분야에 적어도 1종의 새로운 전문색인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사회과학
  - (ㄱ) 통계학
  - (ㄴ) 사회학
  - (ㄷ) 민속학
  - (ㄹ) 군사학
- (2) 순수과학
  - (ㄱ) 수학
  - (ㄴ) 물리학
  - (ㄷ) 화학
  - (ㄹ) 천문학

7) Cleveland, D.B.; Cleveland, A.D. op., cit., p. 32.

- (口) 지학
- (ㄴ) 광물학
- (스) 생물과학
- (ㅇ) 식물학
- (ㅈ) 동물학
- (3) 기술과학
  - (ㄱ) 의학
  - (ㄴ) 농학
  - (ㄷ) 토목공학
  - (ㄹ) 건축공학
  - (ㅁ) 기계공학
  - (ㅂ) 전기공학
  - (스) 화학공학
  - (ㅇ) 가정학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서 그 색인지들을 준비하여 간행하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색인지 간행기관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각 해당 분야의 대표적 학회나 협회에게 색인지 간행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 분야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학회나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sup>8)</sup> 그 예를 따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학회나 협회에 소속된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장 중요한 색인지 이용집단이며, 소속 회원들의 여러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학회나 협회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에 색인지 간행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본다.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회들을 선정하여 각각 해당 분야의 색인지 간행 책임을 맡긴다면 어디서 출판하느냐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남은 문제는 색인지 간행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하는 것이다.

색인지는 그것이 어떤 기관에서 간행되든 기본적으로 그 기관 밖의 이용

8) 한국학술진흥재단. 학회총람. 서울: 동 재단, 1984.

자들을 위한 것이다. 외부이용자들에게 대한 봉사는 결국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모든 색인지 간행 경비는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적어도 구독료로 그 경비가 충당되기까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학술정보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학술진흥법시행령<sup>9)</sup>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시행령의 제27조에는 아래와 같이 색인지 간행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학술정보협력기관의 지정) ①문교부장관은 학술정보의 관리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학술정보 교환의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각 분야에서 선정된 학회들을 학술정보교환협력기관으로 지정하면 색인지 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5.2. 조정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많지 않은 색인지들의 내용상에도 중복이 있고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4.2 참조). 중복되는 색인지는 자원의 낭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한 중복은 당연히 조정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학분야에서 간행되는 5종의 색인지는 그 간행기관에 따라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의 「신착자료속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조사월보논고제목총색인」 및 「주간내외경제논고제목총색인」과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자료실의 「KOTRA 무역정보 INDEX」로 나눌 수 있다. 4.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자는 같은 기관에서 간행되는 색인지들이면서 수록내용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고, 또 같은 분야의 잡지들이 불필요하게 개별적으로 색인 처리되고 있으므로 4개 지는 통합하여 단일 색인지로 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9) 학술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9991호, 1980. 8. 16).



것이다.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은 경제학분야 유일의 학술적 색인지 간행기관이므로—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자료실의 「KOTRA 무역정보 INDEX」는 무역업자들을 위한 자료 색인지이다—점차 경제학의 여타 부문 문헌도 포괄적으로 수록하여 위의 통합색인을 국내 경제학문헌 종합색인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2)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이 간행하고 있는 북한관계문헌에 대한 4개 색인지는 들로 통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내북한간행물기사색인」은 국내학술잡지 212종에 게재되는 북한관계 연구논문, 자료 및 단행본을 수록하고,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은 국토통일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한 모든 연구성과를 수록하여 두 색인지의 수록내용은 상당 부분이 중복되므로 이것을 하나의 색인지로 통합할 수 있다. 또 「북한간행물기사발췌목차집」은 동 자료관리국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 간행물들에 게재된 중요 기사를 수록하고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차집」은 자료관리국에 소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북한 잡지들의 목차를 수록하여 양자의 수록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이 역시 하나의 색인지로 통합할 수 있다.

(3) 정부기록보존소가 간행하는 「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목록집」의 수록내용은 동 보존소에서 간행하는 「정부행정자료속보」에 대부분 포함되므로 전자는 후자에 통폐합되어 하나의 색인지로 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4.2 참조).

(4)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하는 「법률문헌색인」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간행하는 「학술논저종합색인」 법률학편은 모두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학관계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술잡지 기사에 대한 색인이며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체제나 예상 이용대상에도 큰 차이가 없는 이 두 색인지는 간행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부주의와 비능률의 표본과 같은 것으로 당연히 둘 중 하나는 간행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5. 3. 보완

현재 연구자들이 색인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새 색인지가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내용이 중복되는 어떤 기존 색인들이 통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수록내용상 어느 기존 색인지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나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색인지 중 어떤 것이 그 내용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위의 5.2에서 이미 논의된 바이지만 경제학분야의 한국은행 도서자료실 간행 4개 색인지 즉 「신착자료속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조사월보논고제목총색인」 및 「주간내외경제논고제목총색인」은 단일 색인지로 통합간행되고, 점차적으로 경제학의 여타 부문 문헌을 추가 수록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학문헌 종합색인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우선과제이므로 이 분야 연구자들이 기존 국내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포괄적 경제학문헌색인을 마련하는 일 또한 정보관리분야의 우선과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2) 정치학분야와 행정학분야에는 각각 5종 및 4종의 색인지가 있지만 모두 제한된 주제 범위의 문헌만을 수록하고 있어 여타 부문 연구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분야에 각각 포괄적으로 국내문헌을 안내하는 종합적 성격의 새로운 색인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색인지는 기존 색인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발전시켜서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교육학분야의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은 국내 교육과정관계 연구성과만을 수록하는 색인지이다. 이것은 교육학분야에서 교육과정 연구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전부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여타 부문의 문헌도 추가 수록하여 교육학 전부문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색인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술과학분야에서 「해외산업기술정보」지를 제외한 6종의 색인지는 모

두 특허청 자료과에서 간행하는 특허공보이다. 기술분야에서 특허문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그 전부는 아니다. 모든 종류와 형태의 국내 기술과학 문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도구가 필요하다. 기술과학문헌은 아직 국회도서관의 주제분야별 기사색인 시리즈에서도 분리 간행되고 있지 않아 불편하지만 동 도서관의 격월간 「정기간행물기사색인」지가 유일한 안내도구이다. 우선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속의 기술과학관계 기사들을 추려서 주제분야별색인 시리즈의 일부로 「기술과학논문기사색인」을 간행하여 이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 5. 4. 과도적 조치

위에서 논의된 각 분야의 전문색인지들이 모두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의 틀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도적 조치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색인지를 착실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현재 국립기관에서 간행되고 있는 4종의 종합색인지를 보충 완성하여 국내 전분야 문헌이용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법일 것이다. 4.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고 있는 4종의 색인지 즉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주제분야별 기사색인 시리즈, 「학술논저종합색인」 및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적어도 그 수록범위에 관한 한 거의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그 중에서 학위논문목록을 제외한 세 색인지는 간행주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지는 현재의 격월간이 연구자들의 속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월간으로 바꾸어야 하며, 주제분야별 기사색인 시리즈는 현재의 「인문과학논문기사색인」과 「사회과학논문기사색인」 외에 독자적 국내문헌 안내도구를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못한 순수과학분야와 기술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순수과학논문기사색인」과 「기술과학논문기사색인」을 신설 추가하고 그 간행주기는 격월간 또는 제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끝으로 「학술논저종합색인」은 10년이 넘는 현재의

간행주기를 연간으로 바꾸고 5년 또는 10년마다 누가 합본하여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색인지 간행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빈틈과 중복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필요한 색인지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간행되는 협동체제의 편성 방안을 검토한 후에 얻어진 주요 발견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색인지가 없어서 직접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여 읽어 보기 전에는 연구자들이 쉽게 서로의 연구성과를 알 수 없는 다음의 7개 분야에는 적어도 1종씩의 일반적 성격을 가진 색인지가 조속히 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철학
- (2) 종교
- (3) 순수과학
- (4) 예술
- (5) 어학
- (6) 문학
- (7) 역사

(나) 색인지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사회과학,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에서 현재 전문색인지가 없는 다음의 각 단위 분야에는 적어도 1종씩의 새로운 색인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사회과학
  - (ㄱ) 통계학
  - (ㄴ) 사회학
  - (ㄷ) 민속학
  - (ㄹ) 군사학
- (2) 순수과학

- (ㄱ) 수학
- (ㄴ) 물리학
- (ㄷ) 화학
- (ㄹ) 천문학
- (ㅁ) 지학
- (ㅂ) 광물학
- (ㅅ) 생물과학
- (ㅇ) 식물학
- (ㅈ) 동물학
- (3) 기술과학
  - (ㄱ) 의학
  - (ㄴ) 농학
  - (ㄷ) 토목공학
  - (ㄹ) 건축공학
  - (ㅁ) 기계공학
  - (ㅂ) 전기공학
  - (ㅅ) 화학공학
  - (ㅇ) 가정학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제외된 새로운 색인지의 간행은 각 분야에서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회나 협회를 선정하여 맡기고, 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한국은행 도서자료실이 간행하는 경제학분야의 「신착자료속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조사월보논고제목총색인」 및 「주간내외경제논고제목총색인」은 수록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같은 금융 및 재정 부문 잡지들인데 불필요하게 개별적으로 색인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 4개 색인지는 통합하여 하나의 색인지로 간행하고, 여기에 단계적으로 경제학의 여타 부문 문헌도 추가 수록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학문헌 종합색인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이 간행하고 있는 북한관계문헌에 대한 4종의 색인지는 수록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국내북한관계간행물기사색인」과 「북한관계연구자료목록」, 「북한간행물기사발행목록집」과 「북한간행물마이크로필름목록집」을 각각 통폐합하여 2종의 색인지로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정부기록보존소가 간행하는 「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목록집」의 수록내용은 동 보존소에서 간행하는 「정부행정자료속보」에 대부분 포함되므로 전자는 후자에 통폐합되어 하나의 색인지로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하는 「법률문헌색인」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간행하는 「학술논저종합색인」 법률학편은 그 내용이 거의 같고 체제나 예상 이용대상도 대동 소이하므로 당연히 둘 중 하나의 간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 정치학분야와 행정학분야에는 각각 5종 및 4종의 색인지가 있지만 모두 제한된 주제 범위의 문헌만을 수록하여 여타 부문 연구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 색인지 중의 하나 또는 모두를 발전시켜서 두 분야에 각각 포괄적으로 국내문헌을 안내하는 종합적 성격의 색인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 국립중앙도서관이 간행하는 「한국교육과정관계자료목록」은 교육학의 여타 부문 문헌도 추가 수록하여 모든 교육학자 및 교육자에게 유용한 색인지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차)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의 틀이 마련되기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각 분야의 색인지를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3종의 일반색인지를 보강하여 국내 전 분야 문헌이용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 보강 방법으로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지」는 현행 격월간제가 연구자들의 속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월간으로 바꾸고, 주제분야별기사색인시리즈는 현재의 「인문과학논문기사색인」과 「사회과학논문기사색인」외에 독자적 국내문헌 안내도구를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못한 순수과학분야와 기

술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순수과학논문기사색인」과 「기술과학논문기사색인」을 신설 추가하고 그 간행주기는 격월간 또는 제간으로 하며, 「학술논저총합색인」은 10년이 넘는 현재의 간행주기를 단축하고 5년 또는 10년마다 누가 합본하여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록 1. 예비조사 대상 기관

1. 공업진흥원
2. 국립공업시험원
3. 국립건설연구소
4. 국립노동과학연구소
5. 국립보건원
6. 국립수산진흥원
7. 국립중앙도서관
8. 국립환경연구소
9.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0. 국토개발연구원
11. 국토통일원
12. 국회도서관
13. 농업진흥청
14. 대한무역진흥공사
15. 부산수산대학
16. 북한연구소
17. 산림청임목육종연구소
18. 산업연구원
19. 서울대학교
20. 외교안보연구원
21. 임업시험장
22. 특허청
23. 학술원
24. 한국개발연구원
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6. 한국공업표준협회
27. 한국교육개발원
28. 한국기계연구소
29.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0. 대한무역진흥공사
31. 한국산업은행
32. 한국생산성본부
33. 한국에너지연구소
34. 한국은행
35. 한국전기통신연구소
36. 한국전력주식회사 기술연구소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8. 한국축산과학연구소
39. 한국표준연구소
40. 한국학술진흥재단
41. 한국해양대학
42. 한국화학연구소

## 부록 2. 주요 색인지 간행 기관

1. 국립중앙도서관
2.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
3. 국회도서관
4.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자료실
5. 산업연구원 정보자료실
6. 서울대학교 도서관
7. 정부 기록보존소
8. 특허청 자료과
9. 한국은행 도서자료실



<참 고 문 헌>

- 최성진. 우리나라의 초록시스템—현황, 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 1984; 6: 133-63.
- Borko, H.; Bernier, C.L. *Index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Cleveland, D.B.; Cleveland, A.D. *Introduction to Indexing and Abstracting*. Littleton, U.S.A.: Libraries Unlimited, 1983.
-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FID News Bulletin. 1974; 24: 3-4.
- Keenan, S.V.; Elliot, M.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1973; 64: 145-50.
- Shannon, C.E.; Weaver, W.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49.

## A Study on the Planning of Nationwide Indexing Services for Korea

Sung Jin Choi\*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rvey the major indexing bulletins of national nature in Korea, to define such problem areas as lacunae, duplicates and limitation in coverage in the indexing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action for improving the existing indexing services in the ligh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tradition and constraints unique to Korea.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reached at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A) A new indexing bulletin of general nature covering the entire field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without an established indexing service available for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 (1) Philosophy
- (2) Religion
- (3) Pure sciences
- (4) Art
- (5) Language
- (6) Literature
- (7) History

(B) A new specialised indexing bulletin needs to be created in each

---

\* \*Professor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of the following fields where indexing services are heavily utilised but no, or only partial, indexing service is available.

- (1) Social sciences
  - (a) Statistics
  - (b) Sociology
  - (c) Folklore
  - (d) Military science
- (2) Pure sciences
  - (a) Mathematics
  - (b) Physics
  - (c) Chemistry
  - (d) Astronomy
  - (e) Geology
  - (f) Mineralogy
  - (g) Life sciences
  - (h) Botany
  - (i) Zoology
- (3) Applied sciences
  - (a) Medicine
  - (b) Agriculture
  - (c) Civil engineering
  - (d) Architectural engineering
  - (e) Mechanical engineering
  - (f) Electrical engineering
  - (g) Chemical engineering
  - (h) Domestic science

(C) Publication of the indexing bulletins suggested in A and B above may be ideally carried on by a qualified and dependable learned

society established in the respective fields and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hould be financ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 under the provisions of Art. 27 of the Scientific Research Promotion Act of 1979.

(D) The coverage and contents of the four indexing bulletins in the field of banking and financing published by the Library of the Bank of Korea are similar and considerably duplicated.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four indexing bulletins are combined in one to form a mor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bibliographical tool in the field and it is further developed into a general guide to the literature produced in the entire field of economics in Korea by gradually expanding its subject coverage.

(E) For the similar reasons stated in D, the Index to the Articles on North Korea and the Catalogue of Theses on North Korea, both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ibrary, are suggested to make into one. The Index to the Articles of the Selected North Korean Journals and the Index to the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Journals in Microfilm Housed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ibrary, both published by the same Library, are also suggested to be combined in one.

(F) The contents of the Catalogue of the Reports Submitted by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Travelled Abroad,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are included in the Index to the Information Materials Related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The publication of the former is hardly justified.

(G) The contents of the Index to Legal Literature publish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and those of the Law Section of the Index to Scholastic Works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re nearly identical. One of the two indexes should cease to be published.

(H) Though five indexes are being published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fou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ir subject coverage is limited. Naturally, these indexes are little usable to many other researchers in the two fields. A comprehensive index covering all the specialised areas in each field needs to be developed on one or all the existing indexes.

(I) It is suggested that the Catalogue of the Scholastic Works on Curricula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expands its subject coverage to become a more usable and effective index to all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J) The bimonthly Index to Periodical Articles and the specialised index by subject serie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Index to Scholastic Works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coverage and frequency of publication to be used more effectively and more efficiently by all users in all fields till the indexing bulletin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fully be available in Korea.